

다산포럼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한국사)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과제는 전 세계 일류 국가 도약과 국민의 사회복지 증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분단 극복과 통일 자주 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이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공직자의 힘이 큰 나라다. 공직자가 기획과 예산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직자가 올바른 사상과 기획력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세계 평화를 위해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산은 이런 생각으로 공직자의 청렴을 그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목민관 또는 관리와 백성 사이가 유기적 일체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소통이 단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권력을 백성에게 위임받은 관리가 도리어 백성을 수탈하고 자신의 사욕을 불리는 전도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 후기 지방의 현실에서 민생을 해치고 위협하는 존재는 바로 무능력

다산의 목민 정신과 21세기 공직자의 청렴

하고 부패한 관리 계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당시 수령이 사익만 추구해서 백성들이 시들고 병들어 쓰러져 도랑을 채우는 참혹한 현실에서도,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신만을 살찌우는 부조리한 실상을 고발하였다. 이처럼 전도된 현실에 대한 슬픔과 분노의 마음에서 다산은 목민의 본래 의미와 이념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다산은 호전(戶典) 6조에서 국가 세법(稅法)의 투명성과 공평한 부역을 강조하였다.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불공평하거나 공직자가 세금을 조작하여 개인의 이권을 챙기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세금 공평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도 강조했다. 또한 청렴과 함께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기반 조성에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전(公典) 6조에서 국가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기반으로, 도로를 잘 닦고 교량을 제대로 만들어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산은 특히 '목민심서' 서문에서 공직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도(司徒)는 만백성을 가르쳐 각기 수신케 하고, 태학(太學)에서 국자(國子)들을 가르쳐 각기 수신하고 치민(治民)케 하였으니, 치민하는 것이 목민이다. 그런즉 군자의 배움은 수신이 이면이요, 나머지 받은 목민인 것이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멀어졌고 그 말씀도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어두우니,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기를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여윌고 시달리고, 시들고 병들어 서로 쓰러져 진구령을 매우는데, 그들을 기른다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이처럼 당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치며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인식한 다산은, 공직자가 올바른 인간으로 백성들을 위해 복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청렴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공직자 역시 다산의 정신과 개혁을 배워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서 보듯이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친족 등 너무도 광범위한 공직자들이 땅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하다못해 서울의 한 자치단체 구청장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관내 개발지역 주택 매입을 비롯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마저도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오늘날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산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청렴을 생각하고 실천하여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혼자 술 마실 때가 많아졌다. 혼자 마시면 여럿이 마실 때보다 훨씬 기쁨 깊어 술이 내려간다. 그래서 뜨겁다. 목을 타고 사르르 내려가는 감촉을 느끼는 순간, 그 술은 순간 심연에 감춰진 선전(先禱)의 목으로 흐르고, 그러면 어느새 나는 아버지와 잔을 나누고 있다.

아버지는 늘 뒤처져 걸었다. 앞서는 법이 없으셨다. 농사는 거ге 밤이 늦도록 했고, 일을 마치고 뒤를 돌아 보면 아버지 등 뒤로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오르곤 했다.

달을 한 짐 지고 오시는 아버지, 금가루 같은 달빛을 밟으며 아버지 그림자가 이끄는 대로 고단하게 돌아오곤 했다. 힘들지 않는 시대가 있었겠는가마는 오늘날에도 자식들의 화려한 주변 무대가 끝나고, 조연으로 사모곡까지 끝난 후, 무대 뒤편에 아버지만은 관객처럼 쓸쓸히 앉아 계신다. 늘 표정 없이 그리고 말도 없이, 아버지는 왜 마지막 장면까지 혼자 계신 걸까.

"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 들국화도 수줍어 셋노랑게 웃는다 /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 아 테스

아버지의 술잔은 절반이 침묵

형 아프라 /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 세월은 또 왜 저래"

대중가요, 막걸리 한잔에 테스형을 들고 있노라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술잔에 어른거린다. 이 시대 50~60대 남성들에게 슬픔과 아쉬움, 애잔한 연민을 불러오는 울컥한 언어가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 흉내를 내서 홀로 술잔을 비우고 눈이 벌겋게 되도록 울고 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라앉는다.

아버지 하면 술잔과 눈물이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 이름 속에 우리의 슬픈 현대사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족을 지켜야 했기에 앞섰거나 또는 앞설 수 없었던 고단한 아버지들. 당신들의 굴곡진 삶이 등으로 굽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가난과 회한 그리고 이념을 한꺼번에 불러내는 일하기에 아버지에 대한 호명은 그 시대를 불러내는 것만큼 아프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본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환동안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들었다.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지불을 열 곁에다 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이정준 '소문의 벽')

아버지들은 해방과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의 어느 매듭을 거쳤던 세대이다. 가난보다 더 비참한 여순사건과 4·3이라는 대립과 반목, 5·16 쿠데타와 지독한 유

신, 전두환 독재를 굴욕적으로 견뎌야 했던 악몽과 몸부림이 들어 있다. 너무도 잔인해서 인간의 내면을 파괴해버린 것들, 지금은 휘발해 버리고 덮여 버린 강요와 몰살, 그 속에서 침묵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고뇌가 술잔에 들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가족을 살피느라 앞서는 법이 없었고 선블리 선택하는 법이 없었다. 항상 뒤에서 가족이 무사히 앞길을 헤쳐 나갈 때까지 버려터 호위무사가 되어 위험을 지키는 존재 말이다.

아버지의 술잔을 보며 모를지기가 이땅의 주인이 누구였고, 누구였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본다. 늘 뒷전에 물러섰던 우리들의 아버지, 그들의 술잔은 절반은 한숨이고 나머지 절반은 침묵이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 광풍이 휘몰아쳤던 시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미안함을 침묵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들이었으리라.

아버지, 이제 대부분 생을 마감하고 마을 뒷산에 계시거나 생존해 계시다면 증조할아버지가 되었을, 회오리처럼 강줄기를 건너온 남자들, '남이일인 중천굴'으로 침묵을 강요받았던 이 시대 대부분의 일이 없는 아버지들을 술잔 속의 한숨과 회한 그리고 침묵으로 읽는다.

오늘도 혼자 술을 마신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삶을 읽는다.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한 아버지 술잔이 파란 세계에서는 이야기꽃, 웃음꽃으로 넘쳤으면 좋겠다.

작은 풍차가 만들어 낸 에너지 기적

튀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적화된 풍력산업이 각광받으며 기술 개발을 향한 움직임도 빨라졌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세계 풍력시장은 풍부한 풍량과 안정적인 부지를 겸비한 해상풍력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해상풍력 시장을 주도하는 유럽과 중국 외에 최근에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해상풍력 설비 증설에 나섰다.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의 2배인 연평균 28.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세계 해상풍력 설비 용량은 2010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중 평균 설비 이용률은 44%로 10년간 7% 상승하였다. 반면 건설비용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제품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등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9년에는 34%가 낮아졌다.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성 면에서도 우수한 결과가 입증된 것이다.

풍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비 이용률 25%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판단한다.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설비 이용률은 평균 33~34%로 추정되나, 이용률 산출은 터빈-블레이드의 크기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201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제주 탐라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 이용률 29%를 상회하는 34%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신의 기술이 적용될 신안 해상풍력은 향후 더 큰 경제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풍력발전기의 설계 수명 역시 과거에는 20년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설계 수명이 30~40년인 모델을 개발 중에 있어 미래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해상풍력은 연관 산업 분야가 다양하고 신산업 창출이 용이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신안 해상풍력단지용 45조 40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면 생산 유발 효과는 93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7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덴마크·영국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풍력 단지화 연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으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탄소 자체를 줄이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적 방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이 바로 그 해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 전남의 새 바람 해상풍력으로 지역·국가·지구를 살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자. 전남에 글로벌 수준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 국내 해상풍력 업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내수시장을 확대해 해상풍력 5대 강국의 꿈을 이뤄내자. 무엇보다도 45여 년을 버텨온 인류의 삶터, 우리 지구에 다시금 건강한 숨을 되찾아 주자.

社說

농지 소유 농업인만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규제하기 위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도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 면적 168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 평균 농가 고정자산 가운데 토지 면적은 2016년 1만1458㎡에서 지난해 2019년 1만164만㎡로, 3년 새 11.3%(1294㎡)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당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농 계획과 농기구 조달 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 경우 대부분 비농업인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허위 기재 확인 및 사후 관리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2년 이상 영농 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아울러 농지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대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소유 자격 제한을 유지하되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임대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장에 있는 영유아 돌봄 시설 한 곳도 없다니

장애를 지닌 영유아(만 6세 미만)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시설이 광주·전남 지역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정원 초과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의 한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 살배기 도영(가명)이는 이달 초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엄마 손에 키워졌지만, 엄마마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돌봄 사람이 없어 2년 전 이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폐성 진단까지 받았지만 이 시설에서는 언어치료 외에는 해 줄 게 없다.

자폐증상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만큼 작업치료사·학습치료사·특수교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데 광주·전남에는 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24시간 장애인 돌봄 거주 시설은 광주에 24곳 전남에 38곳 등 62곳이 있지만, 만 6세 미만의 어린 장애인들을 맡아 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영이를 보호 중인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수소문 끝에 전국에서 아홉 곳의 장애인 영유아 거주 시설을 찾아 위탁·보호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타 지역 폐쇄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원이 차 여력이 없다" 등의 말을 들어야 했다. 그나마 경남 창원시의 한 시설에서만 "아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광주에 주소를 둔 만 6세 미만 장애 아동은 251명에 이룬다고 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하려면 장애 주기와 장애 정도에 맞는 치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 영유아를 부모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감히 재정을 투입, 그들의 재활 및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無等鼓

"하얀 꽃 짙레꽃/ 순박한 꽃 짙레꽃/ 별처럼 슬픈 짙레꽃/ 달처럼 서러운 짙레꽃 / 짙레꽃 향기는 너무 슬프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지난 18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광주 시립 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한상일) 제125회 정기 연주회 무대에 오른 '우리 시대의 소리꾼' 장사익(72)은 세 번째 곡으로 '짙레꽃'을 불렀다. 열다섯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 마흔여섯 살에 데뷔한 가수의 인생이 절절히 녹아 있는 자전적 노래는 250여 관중들의 심금(心棼)을 울렸다.

예술가의 위로

예술가의 덕담이었다.

연주회에서는 관현악 협주곡인 '아리랑 환상곡'을 시작으로 '광주 용진 들노래를 위한 국악관현악'과 통소 협주곡 '풍전산곡(風轉山曲)- 바람이 전해 준 산의 노래', 타악 협주곡 '복이라 동동' 등이 잇따라 선보였다. 이날 현악기 연주 단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관객들은 한 좌석 띄어 앉았으니 코로나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듯했다. 빈 객석은 '거리 두기 지키는 권있는 나' '덕분에 내 맘은 질로 좋아'와 같은 재미있는 문구가 적힌 피로 돌려져 있었

다. 첼리스트 요요마(馬友友)는 최근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일부러 첼로를 챙겨 온 그는 접종장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백신 이상의 '지유'를 선사했다. 2년째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삼 예술과 공연예술가의 힘을 깨닫는다.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예술가들은 우리 사람들이 가슴속에 있는 '마음(心)의 거문고(琴)'를 울려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것 같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고시래~!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고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세계적인 발명왕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전구를 켤 수 있는 에너지를 바람에서 얻도록 한 풍력발전 발명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130년 전 풍력발전기를 개발한 덴마크 출신의 기상학자이자 발명가 폴 라플이었다.

예로부터 풍차는 곡식을 빻고 물을 끌어올리는데 사용되어 왔는데, 그는 바람의 힘을 에너지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으로 1891년 풍력발전 장치를 개발했다. 1897년에는 풍력발전용 풍차를 직접 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1940년 이후에는 덴마크 등 유럽과 미국 등지에 본격적으로 발전용 풍차가 보급되었다. 오늘날 풍력발전의 효시인 셈이다.

1970년대 석유 파동에서부터 1980년대 체르노빌, 2010년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 겪으며 세계는 에너지 문제로 고심해 왔다. 이제는 인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기후 위기까지 더해져, 121개국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들은 앞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